



LG디스플레이는 CGV와 손 잡고 주요 극장에 올레드 체험관을 개설했다. /LG디스플레이

### “CGV서 올레드 디스플레이 만나보세요”

LG디스플레이 4곳에 체험부스 마련

LG디스플레이가 영화 마니아들을 찾아 올레드 우수성을 알리고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CJ CGV와 제휴를 맺고 내년 2월까지 서울 주요 극장 4곳에 올레드 체험 부스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소는 CGV 용산아이파크몰과 영등포, 왕십리, 여의도 등 4개소다. 극장 로비에 체험부스를 만들어 55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3면에 설치한 방 10

개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름은 LG 디스플레이 올레드 스페이스 프로젝트다.

체험 기간 동안에는 방문객 1만5000명에 핫도그와 탄산음료 세트, 혹은 탄산음료를 선물하는 ‘CGV F&B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한다.

부스는 용산아이파크몰과 영등포점에는 최근 개장했으며, 왕십리에는 13일, 여의도에는 16일 운영을 시작키로 했다.

/김재용 기자 juk@

### 포스코, 해외 기관 투자자 만나 적극 소통

사외이사 투자가미팅 개최

포스코가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투자가미팅(IR)을 개최했다.

포스코사외이사들은 지난 7~8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블랙록을 비롯한 싱가포르내 지분율 상위 6개사를 직접 방문해 주주와 적극 소통에 나섰다. 최정우 포스코회장은 지난해 11월 100대 경영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사외이사 와 주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내외 주요 주주들을 초청해 사외이사들이 주관하는 ‘2018 토크 위드 셰어홀더스’를 진행했고, 올해는 7월에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2019 사외이사 IR’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IR에는 김신배 이사회 의장, 박병원 이사, 김주현 이사 등 사외이사 3명과 임승규 재무실장이 참석해 주주들의 관심사항인 ▲이사회 구성·역할 ▲경영현안 ▲주주환원정책 등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포스코사외이사들은 최근 철강시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포스코는 원가절감 노력과 철강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WTP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와 신규 고객사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는 코딩 전문가 인증식을 열고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노력을 이어갔다. /LG전자

### LG전자, 코딩 전문가 100명에 인증식

전문가 8명과 박일평 사장 참석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 작업에 한창이다.

LG전자는 8일 서울 서초R&D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가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LG전자 코드잼’을 통해 선발된 전문가 8명과 박일평 사장이 참석했다. 전문가 8명은 1000여명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선발된 인력들이다.

앞서 LG전자는 2012년부터 코드잼을 통해 코딩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왔다. 올해까지 100명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LG전자는 전문가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부여했으며, 기술 세미나 등도 맡겼다. 해외 콘퍼런스 참석과 기술 탐방 등 기회도 부여한다.

/김재용 기자

### SKT-LGU+-정보통신진흥원, MOU 체결

## 5G IoT 생태계 ‘3중 협력’

통신망 연동 기술규격 공유  
긴밀한 협력으로 경쟁력 UP  
중소 기술자문·컨설팅 지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5G 사물인터넷(IoT)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5G 기반 혁신적 IoT 서비스를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원에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 연동 기술규격에 맞춰 IoT 제품을 검수하고 사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소기업이 이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5G IoT 관련 통신망 연동 기술규격을 공유하고 각사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주고받는 등 긴밀한 협력



최낙훈 SK텔레콤 5GX IoT/Data그룹장(왼쪽부터),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융합산업본부장, 박상봉 LG유플러스 품질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5G IoT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통신사 사전 테스트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테스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양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5G IoT 관련 기술자문과 컨설팅 등의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융합 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ICT 산

업 혁신을 이끌고 중소 혁신기업을 함께 육성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봉 LG유플러스 품질센터장은 “LG유플러스의 우수한 5G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 확산에 기여하고, 5G 생태계의 모범적인 동반 성장 사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AI가 패턴 분석해 빌딩 운영... 에너지 효율 ↑

KT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AI 엔진에 지능형 컨트롤러 접목

KT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중대형 빌딩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은 빌딩자동화시스템(BAS)에 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 ‘로보 오퍼레이터’ 및 지능형 컨트롤러 ‘이박스’를 접목한 서비스다.

로보 오퍼레이터는 빌딩의 에너지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딥러닝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설비 제어 알고리즘을 도출한다. 이박스는 로보 오퍼레이터의 신호를 받아 다수의 설비를 통합 제어한다.

이 서비스는 빌딩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냉·난방기, 공조설비 등의 운영을 자동 제어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작업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 직원(왼쪽)과 KT 모델이 서초구 우면동 KT 융합기술원에서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시범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또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중장비 등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이박스 단말과 전기·가스 계측기 설치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출근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등 전력을 켜고 임의로 온도를 맞추는 등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외부 온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비를 제어하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이 불필요하다.

만약 설비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는 실시간 문자 알람을 보내주고 관제센터에 있는 KT 전문 요원들의 원격 관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KT는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서비스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3개 사옥에 시범 적용해 에너지 절감률 및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이를 통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평균 10% 가량 절감한 것을 확인했다.

/김나인 기자

###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CES 2020’서 최고 혁신상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CES 2020 혁신상’에서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드론·무인시스템’ 부문에서 수소연료전지 드론으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연료전지 드론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 20~30분에 불과한 배터리형 드론의 비행

시간을 극복함으로써 드론의 활용폭을 크게 확장했다.

또 ‘지속가능, 에코 디자인&스마트 에너지’ 부문에서는 드론용 수소연료 전지팩 DP30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소비자기술회의(CTA)는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인 CES에 앞서 28개 부문에 걸쳐 탁월한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별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각 부문별로 최고 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 최고혁신상, 기준을 넘는 점수를 얻은 제품에 혁신상이 주어지며 수상한 제품들은 CES 기간 동안 이노베이션 어워드 전시관에 별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